

기시다, 일본 총리로 선출...오는 31일 4년만에 총선

'물갈이'로 쇠신 이미지 부각...외무·방위상 유임 스가 내각 384일만에 단명·전후 12번째로 짧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은 4년 만에 총선 국면을 맞이한다.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를 잇따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다.

이날 황거(皇居)에서 열리는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저녁 무렵 기시다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퇴했다. 스가 총리 재임 기간은 384일로 전후 총리 34명 가운데 12번째로 짧았다.

기시다를 자신을 뺀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3명을 각료 경험이 없는 '신인'으로 채운다. 쇠신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다.

총리관저의 2인자이며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과학상에 맡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기시다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유임하기로 해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찍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을 경제산업상으로 임명한다.

전후 최장 재무상을 지낸 아소 다로(麻生太郎)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를 재무상에 앉히고 신설하는 경제안전보장상에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방위장관을 기용한다.

기시다를 이날 1일 단행한 자민당 내부 인사에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계조사회장을 간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아베 측근에게 요직을 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4일 의회에서 새 총리로 선출된 뒤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를 아베 정권 시절 연속으로 약 4년 8개월 간 외무상을 지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를 당

사자이다.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임기가 이달 21일 만료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기시다를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여당 간부들을 인용해 전했다.

애초에는 이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진정 국면에 있고 새 내각 출범에 대한 기대 높아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 서둘러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총선이 실시된 것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이었다.

스가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다.

4년 만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유권자가 어떤 심판을 내릴지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얀마 잔인한 9월, 시민 100여명 사망

'전쟁 선편'로 타격 입자 반군부 세력 색출 강화...민간인 피해 커져

쿠데타 발생 8개월째에 접어든 미얀마에서 지난달에만 100명 가까운 시민이 군부 폭력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한 시민이 최소한 99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아동도 9명이 포함됐으며, 가장 어린아이는 생후 1년 6개월밖에 안된 유아였다.

70대 노인 4명도 목숨을 잃었다. 군부에 대한 저항 공격이 잦아진 곳에

서는 젊은 반군부 활동가들을 노린 살상도 잇따랐다고 AAPP는 밝혔다.

최대 도시 양곤 산차웅 타운십(구)에서는 군경이 지난달 25일 밤 저항 세력은 신처를 급습, 청년 4명을 사살했다.

이달 초에는 마케 지역 땀바 마을에서 10대를 포함해 18명이 학살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주 캄페디에서는 민간인 3명 중 2명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같은 주 소도시 판틀랑에서는 군경의 총에 맞아 숨진 목사 쿵 비약 홀(31)의 시신에서 손가락이 잘려 나간 일도 발생

했다.

현지 언론은 군인들이 반지를 가져가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고 전했다.

군사정권에 맞서는 민주진영의 임시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달 7일 전쟁을 선포하고, 소수민족 반군 및 시민 자체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군(PDF)에 군부 공격을 촉구했다.

반군부 세력의 무장 투쟁으로 피해가 커져자 미얀마군이 PDF 색출 강화에 나서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졌다.

AAPP에 따르면 2월1일 쿠데타 이후 지난 2일까지 군부 폭력으로 사망한 시민은 1천154명에 달한다.

또 7천45명이 군부에 억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관련 NYT·WP 폴리티카상 취소 촉구

"허위보도로 수상...NYT·WP는 스스로 상 반납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보도로 폴리티카상을 받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의 수상 취소를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폴리티카상 선정 위원회에 2018년 NYT와 WP의 수상 취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YT와 WP의 러

시아 스캔들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단정하면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연결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NYT와 WP의 보도가 정략적인 목표를 위해 증거도 없이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폴리티카상 수상작이 부정적하고 의심스러운 오보로 밝혀졌다면, 선정 위원회도 마땅히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NYT와 WP를 향해 폴리티카상을 자신 반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NYT와 WP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 대선캠프의 관련성 등에 관한 보도로 폴리티카 국내보도를 공동 수상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거나 협력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신음하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하루평균 축구장 3천300개 넓이 파괴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경제적 개발이익을 앞세우면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은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INPE)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자료를 인용,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9개월 동안 브라질에 속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이전 기간보다 74% 늘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간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축구 경기장 330만 개에 해당하는 2만4천100㎢에 달한다. 하루평균 축구 경기장 3천300개 넓이의 열대우림

이 파괴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무단벌채가 상당 기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사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캠페인을 이끄는 호를루 바치스타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은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우리의 모든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도 항공사 여승무원 복장 변혁

하이힐 대신 운동화·치마 대신 바지...화장 규정은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한 항공사에서 여승무원들의 오랜 상징이었던 하이힐과 꼭 끼는 복장 규정을 파격적으로 교체한다.

2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저가 항공사 스카이업은 다음 달부터 여승무원들의 기존 유니폼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이힐과 치마, 블라우스 대신 운동화를 신고 혈령한 오렌지색 재킷과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 측은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여성 승무원들이 꼭 끼는 블라우스와 치마, 하이힐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됐다.

스카이업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마리야나 그리고라시는 "승무원의 일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고된 일"이라며 "여승무원들이 성적으로나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외모를 비즈니스에 심본 이용하면서 여승무원들



우크라이나 항공사 스카이업에서 바꾼 여승무원들 복장. 의 편안함과 건강을 맞바꿨다. /연합뉴스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각각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트림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는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환경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드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 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더 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히리오열기능 | 슬라이딩받식 | 지퍼베디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학 L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 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